

임상 간호 실무에서의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

신기수¹ · 조미경²

¹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

The Knowledge, Need, and Usag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Gisoo Shin¹, Mi-Kyoung Cho²

¹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evels of knowledge, need, and usag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27 clinical nurses who work at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in Korea.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st to the 22nd in 2014. Participants responded to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bout their knowledge, need, and usage of English medical terminology, Chinese character medical terminology, and Korean medical terminolog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Duncan's test as post hoc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knowledge and needs with English medical terminology were high. English medical terminology and Chinese character medical terminology were more useful tools for disease than Korean medical terminology. Knowledge of medical terminology was positively correlated between needs and correct use with the clinical nursing situation.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medical terminology education for bio-nursing curriculum is important for clinical nurses and standardization of essential medical terminology is needed.

Key Words: Terminology; Nursing; Knowledge

국문주요어: 의학용어, 간호, 지식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초 의학용어 사용의 시작은 1910년을 전후하여 서양 의학교육이 도입되면서 영어로 된 의학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번역된 용어는 일본의 한자용어를 사용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용어집 발간과 함께 약 10만 용어 이상이 수록된 의학용어편이 출판되었다. 이후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여러 학술 단체에서 학문의 특성이 가미

된 의학용어집을 별도로 출판하였는데 이때 출판된 의학용어집은 대부분 한자를 적은 일본식 한자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1990년대부터 대한해부학회가 주축이 되어 우리말을 근간으로 하는 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으며 현재는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위한 국가시험에서 201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우리말 의학용어 5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Jung, 2006; Kang, 2013).

기초 의학용어는 간호학의 고유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상 간호 실무에서 간호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간호교육에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계속

Corresponding author: Mi-Kyoung Cho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461-713, Korea
Tel: +82-31-740-7415 Fax: +82-31-740-7415 E-mail: ciamkcho@eulji.ac.kr

투고일: 2014년 8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4년 10월 9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으로 강조되어오고 있다. 특히,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인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에서의 기초 의학용어는 교과목 구성과 맞물려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학 전공과목의 구심점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의 기초의학용어에 대한 지식과 활용에 대한 인식은 주로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서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기초 의학용어 학습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Kwon, 2006).

그러나 기초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임상간호사의 활용 정도에 있어서 한자중심의 용어를 학습한 세대는 한자에 익숙하여 한자용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는 반면,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한자용어보다는 한글용어의 사용을 더 선호하고 있어 한자 중심 또는 한글 중심의 의학용어가 혼재되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2). 또한 기초 의학용어의 원어는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한자 또는 한글 중심으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동의어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기초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의사전달자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Kim, 2014;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2). 무엇보다 기초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간호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기초 의학용어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의학용어와 전문 의학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학정보가 급속히 일반화되면서 간호대상자들의 의학지식 습득의 증가와 함께 전문적인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도 심화되어 간호대상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초 의학용어의 표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Lee, 2011;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2).

한편, 임상 간호 실무에서 기초 의학용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근무지 특성과 학습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5; Song, 2010),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이 기초 의학용어를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Hwang, Kim, & Wang,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 간호 실무 현장에서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를 파악함으로 기초간호과학 교육과정에서의 기초 의학용어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간호사들이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의학용어 유형에 따른 임상간호사들의 기초 의학용어 사용 영역, 필요기술 및 의사소통 대상자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기초 의학용어: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전문의학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학용어, 한자중심 용어, 한글중심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0).

영어의학용어: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학용어(English medical terminology)를 의학용어로 정의하였다.

한자중심 용어: 한자용어를 우리말 소리로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적은 일본식 한자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의학용어집 4집 발간(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1) 이전의 의학용어를 한자중심 용어(Chinese character medical terminology)로 정의하였다.

한글중심 용어: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 4집은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뿐만 아니라 영어, 라틴어로 된 용어를 모두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한글중심 용어(Korean medical terminology)로 정의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가 제시한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과 선행문헌(Kang, 2013)을 근거로 영어의학용어, 한자중심 용어, 한글중심 용어를 포함한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용영역 및 의사소통 대상자에 대한 항목과 영어의학용어, 한자중심 용어, 한글중심 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정확한 사용 정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각 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정확한 사용 정도는 10점 척도의 시각적 유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로 점수가 클수록 지식, 필요도, 정확한 사용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해부학 교수 1인, 임상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수간호사 2인, 기초간호과학 담당 교수 2인의 외관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설문지의 각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평가받았다. 전체 도구의 CVI는 0.9였고, CVI가 0.5 이하인 문항 중 내용의 범위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임상 간호사 10명에게 도구의 가독성을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70$ 이었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의학용어 유형별 지식, 필요도 및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종합병원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Creative Research Systems Survey Software의 sample size calculator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선행연구(Cho, Shin, & Choe, 2013)를 참고로 한 신뢰구간은 9.42였다. 유의수준 .05의 범위에서, 병원간호사회 서울지회 회원의 모집단 크기가 27,495명(병원간호사회,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신뢰구간 9.42로 계산한 결과, 본 조사연구의 표본 수는 108명이었으나 탈락률을 15%라고 가정하여 조사 집단의 표본 수를 127명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임상간호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 의학용어 활용 정도에 관련된 것으로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만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No.2014-04)을 받았다.

3.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였고, 서울에 위치한 1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자료수집 요청서를 간호부에 제출하여 간호부의 승인을 얻었고, 연구자가 자료수집부서의 담당 팀장과 수간호사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의 종류와 활용 예를 설문지 작성 전에 참고하도록 나누어 주고 설명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병동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병동을 방문하여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들 중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127부를 간호부에

배포하여 100% 모두 수거하였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Chicago, IL)을 이용해 대상자의 특성, 의학용어 유형별 임상에서 기초 의학용어의 사용영역, 필요한 기술 및 의사소통 대상자는 실수와 백분율로, 연령과 총 경력 등의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 지식 정도, 필요도 및 의학용어 유형별 활용 정도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지식, 필요도 및 의학용어 유형별 활용 정도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s test로 검정하였다.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 지식, 필요도, 의학용어 유형별 활용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검증 시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3세(21-51세)였고 118명(92.9%)이 여성으로서 직위는 115명(90.6%)이 일반간호사였다. 학력은 3년제 전문학사 졸업이 56명(44.1%), 4년제 학사 졸업이 66명(52.0%)이었으며, 총 임상 경력은 평균 5.4년(0-20년)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 경력간호사가 47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근무하는 부서로는 내과병동이 42명(33.1%), 중환자실 23명(18.1%), 외래 21명(16.5%), 외과병동이 19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서 한글중심 용어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30명(23.6%)이었으며, 기초 의학용어의 변천과정에 대하여서는 3명(2.4%)만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학습정보는 74명(58.3%)이 한글 인터넷 엔진을 사용하여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출판된 의학용어 사전, 영어 인터넷 검색엔진, Korean medical library engine (KMLE), 의학검색엔진, 전자사전 순으로 의학용어에 대한 학습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 지식, 필요도 및 의학용어 유형별 활용 정도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임상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은 영어의학용어가 평균 6.1 ± 1.7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한자중심 용어가 5.1 ± 1.9 점, 한글중심 용어가 $2.5 \pm$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27)

Characteristics		N (%) or Mean ± SD (Range)
Age* (year)	< 25	35 (27.8)
	25-29.9	49 (38.9)
	≥ 30	42 (33.3)
		28.3 ± 5.5 (21-51)
Gender	Male	9 (7.1)
	Female	118 (92.9)
Position	General nurse	115 (90.6)
	Manager	12 (9.4)
Education*	College nursing	56 (44.8)
	University nursing	66 (52.0)
	The others	4 (3.2)
Total work experiences (year)	< 1.0	22 (17.3)
	1.0-4.9	47 (37.0)
	5.0-9.9	34 (26.8)
	≥ 10	24 (18.9)
		5.4 ± 4.6 (0-20)
Current working department	Surgical ward	19 (15.0)
	Medical ward	42 (33.1)
	Operating or recovery room	12 (9.4)
	Intensive care unit	23 (18.1)
	Outpatient department	21 (16.5)
	Emergency room	10 (7.9)
Learning experience of Korean medical terminology in bionursing curriculum	Yes	30 (23.6)
	No	97 (76.4)
Change process of medical terminology*	Know exactly	3 (2.4)
	Know slightly	17 (13.4)
	Know little	84 (66.1)
	Have no concern	22 (17.1)
Source†	Published medical dictionary	22 (17.3)
	Korean internet search engine	74 (58.3)
	English internet search engine	21 (16.5)
	Electronic dictionary	11 (8.7)
	KLME medical search engine	19 (15.2)

*Missing; †Multiple choice.

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영어의학용어의 필요도가 평균 7.3 ± 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글중심 용어가 3.9 ± 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학용어 유형별 활용 정도는 영어의학용어가 평균 6.0 ± 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한자중심 용어가 4.8 ± 2.0점, 한글중심 용어가 2.7 ± 1.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의학용어 유형별 임상에서 기초 의학용어의 활용

임상에서 기초 의학용어의 사용영역은 영어의학용어의 경우, 질

Table 2. Knowledge, Need, and Precise Us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Practice (N = 127)

Variables	Mean ± SD	Range	
Knowledge			
	Medical terminology	6.1 ± 1.7	1-9
	Korean medical terminology	2.5 ± 1.5	1-7
Chinese medical terminology	5.1 ± 1.9	1-9	
Need			
	Medical terminology	7.3 ± 1.8	2-10
	Korean medical terminology	3.9 ± 2.0	1-8
Chinese medical terminology	5.6 ± 1.9	1-10	
Precise use			
	Medical terminology	6.0 ± 1.7	2-9
	Korean medical terminology	2.7 ± 1.8	1-7
Chinese medical terminology	4.8 ± 2.0	1-9	

병영역이 91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해부학 영역이 76명(59.8%), 병태생리의 증상 및 징후와 진단 및 검사 영역이 각각 43명(33.9%), 간호과정 및 기록이 29명(22.8%)으로 나타났다. 한글중심 용어의 경우, 해부학 영역이 39명(30.7%)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병태생리의 증상 및 징후가 36명(28.3%), 질병영역이 35명(27.6%)으로 나타났다. 한자중심 용어의 경우, 영어의학용어와 마찬가지로 질병영역이 69명(54.3%)이고 그다음으로 해부학 영역이 63명(49.6%)으로 나타났다. 기초 의학용어의 유형과 상관없이 간호과정 및 기록보다는 질병과 해부학 영역에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임상에서 기초 의학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영어의 학용어와 한글중심 용어의 경우 쓰기 영역이 각각 99명(78.0%), 75명(59.1%)으로 가장 필요한 기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해석이 88명(69.3%), 73명(57.5%)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자중심 용어의 경우 해석 영역이 86명(67.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쓰기 영역이 63명(49.6%)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가 기초 의학용어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영어의 학용어의 경우는 의사가 70명(55.1%)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가 31명(24.3%), 의료팀 27명(21.3%)으로 나타났으며, 한글중심 용어의 경우 환자가 54명(42.5%)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24명(18.9%)으로 나타났으며, 한자중심 용어의 경우 의사가 39명(30.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호사가 31명(24.4%), 환자가 30명(23.6%)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사용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활용에 대한 분석은 한자중심 용어와 한글중심 용어보다 영어의학용어가 이 두 용어들과 비슷한 양상

을 띠면서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영어의학용어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Table 4).

연령에서는 30세 이상 간호사들이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지식(F = 12.60, $p < .001$), 필요도(F = 4.86, $p = .009$)와 정확한 사용(F = 11.70, $p <$

.001)에 있어서 30세 미만 간호사들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서는 관리자가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지식($t = -3.43$, $p = .001$), 필요도($t = -2.40$, $p = .018$)와 정확한 사용($t = -2.08$, $p = .039$)에 있어서 일반간호사들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력에서는 5년 미만 간호사보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간호사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간호사보다는 10년 이상 간호사들에서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이 높게 인지되었고(F = 7.76, $p < .001$), 5년 미만 간호사보다 5년 이상 간호사에서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인지되었으며(F = 3.07, $p = .030$), 1년 미만 간호사보다는 1년 이상 5년 미만 간호사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간호사보다는 5년 이상 간호사들에서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정확한 사용이 높게 인지되었다(F = 8.09, $p < .001$). 현 근무부서의 경우,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은 부서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장이나 마취부서, 외래, 응급실 근무 간호사들이 내·외과, 중환자실보다는 영어 의학용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 = 2.81, $p = .019$), 외래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영어의학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F = 3.40, $p = .007$).

Table 3. Useful Area, Necessary Skill and Subjects of Commun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Medical Terminology (N = 127)

Categories	Medical terminology	Korean medical terminology	Chinese medical terminology
	n (%)		
Useful area*			
Anatomy	76 (59.8)	39 (30.7)	63 (49.6)
Disease	91 (71.7)	35 (27.6)	69 (54.3)
Sign and symptom	43 (33.9)	36 (28.3)	22 (17.3)
Diagnosis and test	43 (33.9)	14 (11.0)	27 (21.3)
Nursing process and recording	29 (22.8)	28 (22.0)	24 (18.9)
Necessary skill*			
Listening	79 (62.2)	36 (28.3)	42 (33.1)
Writing	99 (78.0)	75 (59.1)	63 (49.6)
Speaking	66 (52.0)	25 (19.7)	37 (29.1)
Interpretation	88 (69.3)	73 (57.5)	86 (67.7)
Subjects of communication*			
Doctor	70 (55.1)	24 (18.9)	39 (30.7)
Nurse	31 (24.3)	16 (12.6)	31 (24.4)
Medical team	27 (21.3)	13 (10.2)	23 (18.1)
Patients	5 (3.9)	54 (42.5)	30 (23.6)
Nursing students	1 (0.8)	10 (7.9)	3 (2.4)

*Multiple choice.

5.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활용 간의 상관관계

임상간호사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Table 4. Knowledge, Need, and Precise Us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Practice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27)

Characteristics		Knowledge		Need		Precise use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Age* (year)	< 25	5.3 ± 1.7 ^a	12.60 (<.001)	6.6 ± 1.8 ^a	4.86 (.009)	5.1 ± 1.6 ^a	11.70 (<.001)
	25-29.9	5.8 ± 1.6 ^a		7.4 ± 1.9 ^a		5.8 ± 1.6 ^a	
	≥ 30	7.0 ± 1.3 ^b		7.9 ± 1.5 ^b		6.8 ± 1.4 ^b	
Gender	Male	6.0 ± 1.3	-0.10 (.918)	7.0 ± 2.0	-0.57 (.570)	6.0 ± 1.9	0.06 (.954)
	Female	6.1 ± 1.7		7.4 ± 1.8		6.0 ± 1.7	
Position	General nurse	5.9 ± 1.7	-3.43 (.001)	7.2 ± 1.8	-2.40 (.018)	5.9 ± 1.7	-2.08 (.039)
	Manager	7.6 ± 1.2		8.5 ± 1.1		6.9 ± 1.6	
Education*	College nursing	6.0 ± 1.5	0.52 (.598)	7.4 ± 1.8	0.70 (.497)	6.0 ± 1.6	0.36 (.696)
	University nursing	6.0 ± 1.8		7.2 ± 1.8		5.9 ± 1.7	
	The others	6.8 ± 2.0		8.2 ± 1.5		6.6 ± 2.3	
Total work experiences (year)	< 1.0	5.0 ± 1.5 ^a	7.76 (<.001)	6.6 ± 1.8 ^a	3.07 (.030)	4.7 ± 1.6 ^a	8.09 (<.001)
	1.0-4.9	5.8 ± 1.5 ^a		7.1 ± 1.9 ^a		5.8 ± 1.7 ^b	
	5.0-9.9	6.5 ± 1.8 ^b		7.7 ± 1.9 ^b		6.5 ± 1.6 ^c	
	≥ 10	7.0 ± 1.3 ^c		8.0 ± 1.3 ^b		6.8 ± 1.3 ^c	
Current working department	Surgical ward	6.0 ± 1.6	2.01 (.082)	7.4 ± 1.6 ^a	2.81 (.019)	5.8 ± 1.0 ^a	3.40 (.007)
	Medical ward	5.8 ± 1.8		7.2 ± 1.8 ^a		5.6 ± 1.9 ^a	
	Operating or recovery room	6.5 ± 1.8		7.6 ± 2.3 ^b		5.7 ± 2.1 ^a	
	Intensive care unit	6.0 ± 1.5		6.5 ± 1.7 ^a		5.7 ± 1.4 ^a	
	Outpatient department	6.4 ± 1.5		7.7 ± 1.5 ^b		6.6 ± 1.6 ^b	
	Emergency room	7.4 ± 1.0		8.8 ± 1.1 ^b		7.6 ± 1.0 ^b	

post Hoc: Duncan test.

*Missing

Table 5. Correlations of Knowledge, Need, and Precise Us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Practice (N = 127)

	Knowledge	Need	Precise use
	<i>r</i> (<i>p</i>)		
Knowledge	1		
Need	.37 (<.001)	1	
Precise use	.73 (<.001)	.43 (<.001)	1

활용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기초 의학 용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 지식($r = .37, p < .001$)과 활용($r = .43, p < .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활용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73,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일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활용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기초간호과학 교육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초 의학용어는 간호학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기초 의학 용어가 없으면 기초간호과학 및 전공 간호학 교육과정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초 의학용어의 일차 자료는 영어의학용어이지만 현재 이를 표준화하는 국제기구는 없으며, 국제표준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와 국제해부학회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anatomist)에서 정기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고(Chi, 2012; Jung, 2006) 이를 토대로 간호학 교육, 특히 기초간호과학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초 의학용어는 19세가 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사용이 되어졌지만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반 식 한자용어가 도입이 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1990년 대한해부학회에서 인체구조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2001년 우리말 의학용어 4집을 출간하였고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의사국가시험에 우리말 의학용어 4집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2010년 순우리말 의학용어를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한자중심 용어가 병행된 우리말 의학용어 5집이 발간(Kang, 2013)되었으며 의사국가고시뿐만 아니라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초간호학회 주관으로 출판된 인체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미생물학 등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제5판에 따른 지제근 의학용어 사전의 한글중심 의학용어를 활용하되 활용도가 높은 기초 의학 용어는 한자중심 용어를 활용하여 표기되어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대상자 대부분이 한자중심 용어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한글중심 용어에 대한 교육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우리말 의학용어 권장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서 우리말 의학용어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28.3세로서 기초 의학 용어에 대한 학습정보 습득에 대한 자원으로 한글 인터넷 검색엔진을 대상자 과반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세대 특성이 인터넷 세대임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초 의학 용어는 난해한 희랍어-라틴어 유래 용어에서 변경된 순수 영어용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징후나 질병을 처음 기술한 사람 이름 중심의 용어에서 원어나 병변 등을 근거로 한 새로운 기초 의학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Chi, 2012). 따라서 인터넷 세대를 교육하는 기초간호과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글 인터넷 검색엔진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기초 의학용어의 재 정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의 역할이 독자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의학 용어를 풍부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술과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호기록은 제공된 간호를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적인 증거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표준화된 기초 의학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Song, 2007). 또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또는 환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기초 의학용어의 사용과 관련됨이 제시(Choi, 2011; Lee, 2011;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0)되고 있지만 실제 기초간호교육과정에서의 영어의학 용어, 한자중심 용어 및 한글중심 용어 사용에 대한 지침 또는 표준화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기초간호학회의 설립목적은 간호학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병태생리학 등 기초간호과학 분야의 지식을 선정, 통합, 수정, 개발하고 임상간호학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간호의 합리적 근거를 수립하며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1998).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표준화된 개념 기반의 의학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학용어 표준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Lee, 2004), 간호학 분야에서 기초 의학용어는 기초간호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초 의학 용어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기초간호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초 의학용어의 지식 정도, 필요도 및 유형별 활용 정도는 영어의학용어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한글중심 의학용어의 지식 정도, 필요도 및 활용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우리말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권장 정책 이전에 임상에서 활용되는 기초 의학용어의 표준화 지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많은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초 의학용어의 사용영역에 있어서는 영어 의학용어와 한자중심 용어의 사용이 질환명의 사용에서 가장 많은 반면에, 영어의학용어의 사용은 간호과정 및 기록의 영역에서 가장 낮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학용어의 사용 빈도가 간호과정 및 간호기록에서 가장 낮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전자간호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임상간호 분류체계(Saba, 2004)에 기초하여 한글중심 의학용어를 기입하도록 개발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과반수가 영어의학용어와 한글중심 용어는 필기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자중심 용어는 독해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어 임상간호업무에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기초 의학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의학용어 개발과 변천과정에 따라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되며, 기초 의학용어를 한자중심 용어 또는 한글중심 용어로 바꾸는 것에 한계를 제시하며 한글중심 용어의 전용을 고집한다면 기초 의학용어의 표준화와 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연구자의 지적(Chi, 2013)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서의 기초 의학용어 사용에 대한 재고와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의사소통 대상자 간에 따른 기초 의학용어 사용빈도는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영어의학용어와 한자중심 용어는 의사와의 의사소통에서, 한글중심 용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Lee, 2011)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인터넷과 마스크의 발달, 의료정보의 대중화로 인하여 환자와의 의료지식의 차이는 줄었지만 환자 간의 의사소통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속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글중심 의학용어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원칙이 없는 무분별하고 지나친 한글중심 용어의 사용은 환자 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초래되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됨이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 의학용어의 원어는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한자중심 또는 한글중심으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동의어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질환명 또는 인체구조에 대한 오역 또는 동의어 사용으로 인하여 의사전달자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의 장애가 초래되는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Choi, 2011). 따라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지 한글중심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목적이기보다는 환자 중심에서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과 의사소통 교육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초간호과학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어의학용어의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사용은 30세 이상의 연령과 수간호사 이상의 직위에 따라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사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경력에 있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간호사에게 기초 의학용어의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 간호사에게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상수행 능력에 있어 간호사의 연령과 근무경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Park & Kim, 2009)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 대상자의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은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실, 마취부서, 외래 및, 응급실에 근무하는 대상자들의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근무지 특성과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학용어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Kim, 2005; Paganin, Moraes, Pokorski, & Rabelo, 2008)으로서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의학용어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임상간호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 수행 결과에 따라 필수의학용어 또는 대표의학용어로 정의되어지는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정비와 표준화작업이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기초간호과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임상현장에서의 기초 의학용어 활용은 영어의학 용어, 한자중심 용어 및 한글중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영어의학용어가 한자중심 의학용어와 한글중심 의학용어보다 활용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한글중심 의학용어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 필요도 및 정확한 사용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양적 관계를 보여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초 의학용어와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기초의학용어의 차이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간호과학 교과목 교재를 비롯한 간호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육매체를 중심으로 기초 의학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기초 의학용어에 대한 오류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i, J. G. (2012). Characteristics and reality of the medical terminology. Retrieved July 1, 2014, from http://kor.dmse.gist.ac.kr/newbbs/admin_body.asp?req_P=fd...1
- Chi, J. G. (2013). MediGateNews. Retrieved July 1, 2014, from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Print.html?ID=1084250>
- Cho, M. K., Shin, G. S., & Choe, M. A. (2013). A study of clinical nurses' knowledge, need and clinical performance about pathophysiology. *Journal of Korean Biology Nursing*, 15(3), 139-146. doi:10.7586/jkbns.2013.15.3.139
- Choi, C. M. (2011). Medical Leadership Forum. Retrieved June 9, 2014, from <http://www.mlf.or.kr/Page.aspx?MenuID=Laws&BID=Laws&PROC=View&ItemID=389&PageNo=1>
- Hwang, J. I., Kim, W. O., & Wang, M. J. (2011). Nurse characteristics related to level of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7, 209-215.
- Jung, I. H. (2006). History of Korean medical terminology. *Annals of Dermatology*, 58(1), 118.
- Kang, J. M. (2013).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terms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ine Association*, 54, 86-89. doi:10.5124/jkma.2013.56.2.86
- Kim, H. S. (2005). Development & application of a computerized nursing process program for orthopedic surgery inpatients-NANDA, NOC, and NIVC linkag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979-990.
- Kim, S. H. (2014, August 5). The national standards of medical terminology including the nursing terminology is provide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Retrieved November 5, 2014, from <http://nurses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1&articleKey=1123>
-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 The Free Resource Archives. Retrieved June 15, 2014, from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5th_meaning.aspx
-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1998). Introduction. Retrieved August 15, 2014, from http://www.bionursing.or.kr/1s_2.html
- Kwon, Y. M. (2006).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b-based nursing educational program-focused on the medical termin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2(1), 41-51.
- Lee, B. H. (2011).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barrier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9, 35-54.
- Lee, H. S. (2004). A study of the case analysis of conceptual modeling of medical terminologies by ont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3), 141-160.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0, July 28). The 17th Medical terminology roundtable discussion-Basic medical terminology and clinical medical terminology. Retrieved November 5, 2014, from <http://www.namok.or.kr/bbs/index.html?code=conference&category=&gubun=&page=2&number=17&mode=view&cate=&keyfield=&key=>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2, June 20). The 27th Medical terminology roundtable discussion. Retrieved November 5, 2014, from <http://www.namok.or.kr/bbs/index.html?code=conference&category=&gubun=&page=1&number=27&mode=view&cate=&keyfield=&key=>
- Paganin, A., Moraes, M. A., Pokorski, S., & Rabelo, R. E. (2008). Factors that inhibit the use of nursing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es Terminology Classification*, 19, 150-157. doi:10.1111/j.1744-618X.2008.00103.x
- Park, J. A., & Kim, B. J. (2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840-850. doi:10.4040/jkan.2009.39.6.840
- Saba, V. (2007). *Clinical care classification (CCC) system manual*. New York: NY 10036.
- Song, K. J. (2007). Analysis of the nursing practice in a medical ICU based on an electronic nursing recor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883-890.